

광주 국제학교 연쇄 확진, 대전發 집단감염 연관성 ‘주목’

대전 IEM·광주 TCS에이스 국제학교 모두 ‘IM선교회’ 운영
‘세계 선교 목적’ 비인가 기숙형 학교, 감염확산 ‘일파만파’
종교 관련 지역간 교류 여부 조사 중...방역수칙 위반 검토

전국적 규모의 선교회가 운영 중인 광주 지역 비인가 기숙형 국제학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교직원·학생 등 120명 넘는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대전 지역의 또 다른 국제학교와 감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 정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광주시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광주 북구 신용동 소재 ‘TCS에이스 국제학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한 교직원·학생과 가족은 2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TCS 에이스 국제학교는 ‘한국 다음 세대 살리기 운동본부(International Mission·IM선교회)’가 운영하는 비인가 초등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관련 확진자 중 10명은 학교 건물 내 3층 기숙사에서 함께 숙식한 초등학생이다. 나머지 13명도 IM선교회가 운영하는 학교 건물 내 2층에 위치한 교회 예배당, 유치원 등지에서 나왔다.

IM선교회는 세계적 전도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비인가 교육기관을 설립, 젊은 세대에 영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력 인정은 검정고시를 통해 하는 대한학

교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IM선교회가 대전 중구에 운영하는 또 다른 비인가 중·고교 과정 교육시설 IEM국제학교에서도 재학생·교직원 등 127명이 감염됐다.

IEM국제학교 관련 집단 감염은 이달 10일 개학 이후 의심 증상을 보인 재학생이 고향인 전남 순천으로 돌아온 뒤 지난 24일 확진(전남 711번째 환자) 판정을 받으면서 확인됐다.

확진자 발생 통보 이후 교내 밀접접촉자 전수 검사에서 158명 중 127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판명됐다. 양성 판정 비율이 80.3%에 달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시 방역당국은 두 학교간 연쇄 감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학교 모두 운영 주체가 IM선교회로 같아, 감염에 취약한 기숙형 교육을 하는 공통점에 주목했다.

시 방역당국은 대전 IEM국제학교와 광주 TCS에이스 국제학교 간 교직원·선교회 관계자간 인적 교류가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 중이다.

특히 최근 광주 북구 지역 내 선교회 운영 교육기관 2곳이 서로 교류한 모임이 있었던 정황을 파악,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국제학교 운영에 깊이 개입한 IM선교회 관



지난 24일 광주 북구 신용동 내 종교 관련 비인가 교육시설과 인접한 유치원에서 방역당국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를 하고 있다.

련 종교 단체 또는 모임이 새로운 감염 연결고리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TCS에이스 국제학교 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도 면밀히 따지고 있다.

시 방역당국은 국제학교 내 재학생 10명이 모두 감염된 점으로 미뤄 밀집 공간 내 장기간 숙식을 함께 한 것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으로 국제학교를 대안학교 또는 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인지, 집합 제한 시설로 분류된 종교 관련 모임인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까지는 예배 외 성경공부 등 소모임과 시설 내 교인간 집단 숙식 등을 금지한 종교시설 관련 방역 지침 적용에 무게가 실린다.

광주시 방역당국 관계자는 “IM선교회가 운영하는 광주와 대전의 두 국제학교에서 잇따

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만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IM선교회를 매개로 한 지역간 교류, 또 다른 감염 연결고리 여부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국제학교 내 방역 수칙 위반 여부도 검토를 마치는 대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했다.

기동취재본부

목포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본격화

해양대~서해어업단 910m...다음달 실시설계 용역 착수

목포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목포 해양대~서해어업관리단을 잇는 진입도로 910m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월 중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목포 북항은 서해어업관리단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부속기관 및 다수의 공공기관에 이

어 지난해 말 목포수협이 이전을 완료하면서 인근 교통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용역은 ‘제4차 항만기본계획(2021 ~ 2030)’에 따라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공사이다. 도로개설 공사에는 설계비 11억원을 포함해 2024년까지 총 사업비 138억원이 투입된다.

목포해수청은 용역착수 후 목포시를 비롯해

북항에 이전을 완료한 공공기관 등 관련기관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월 중 착수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올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022년 상반기에 공사에 들어가 2024년 완공할 방침이다.

현재 북항 배후부지 진·출입은 북항교차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일하다

목포해수청은 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가 개설되면 기존 북항 진·출입로의 대체도로 기능을 통해 교통혼잡 해소와 북항 배후부지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목포=박정수기자

광주, 1가구 1명 검사받기 캠페인 “연쇄감염 예방”

광주시가 설날(2월12일)을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가구 1명 검사받기’ 캠페인을 전개한다.

광주시 방역당국은 25일 “설 명절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1가구 1명 코로나19 검사받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가구 1명 검사받기’는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 가족간 감염을 막기 위한 것이다.

캠페인 기간은 한달이다. 광주시청 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와 5개구 보건소의 선별진료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으면 된다.

방역당국은 홍보물을 제작해 아파트 등 공공장소에 부착하고 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광주지역 코로나19 감염은 감소세이지만 선교시설과 가족간 감염을 통해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다른 가족으로 연쇄감염을 막기 위해 한 가정의 구성원 1명이라도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부 모임과 출장이 잦은 가족은 꼭 검사를 받아 안전한 설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동취재본부

책과 함께 슬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